

바람의 길목

윤봄솔

초록빛 창창한 풀숲 아래 가려진
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6월의 붉은 페이지에 새겨진
뼈아픈 글자를 길 위로 골라낸다

돌과 잡풀 무성한 귀퉁이에
납작 눌러 비틀린 형태로
여기저기 획이 떨어져 나간 활자들

굽은 부리의 산재가
터진 복창 움켜쥐고 몸을 떨었던
피울음의 광경을 똑똑히 응시하던 자리

환청같은 겹겹의 비명이
평온히 눈을 감지 못한 채
저마다의 독백으로
붉은 울음 복기하는 바람의 길목에서

수많은 녀의 행렬이
차갑게 식은 얼굴로 바람결에 건너와
메마른 갈잎으로 눈을 맞춘다

고귀한 그 희생 마음에 새기며 고개 들어보면
새하얀 구름 나지막이 떠 있는 푸른 하늘에

어지러웠던 지난 세상을 위로하듯
생채기에 바르는 하얀 연고같은 구름이
넉넉한 배경이 되어
평화로운 오후를 그려내고 있다

깊게 패인 역사의 아픔을 잊지 않았다는 듯
구름이 점점 더 부풀어
메마른 땅의 상흔을 덮어주는데

부디, 부러진 글자의 받침이
묻히지 않는 시대의 길잡이 되어

방향 잃어주는 직유의 문장이 되기를
험한 길 이겨내고 평화의 지점으로 가는
완성형의 낱말이 되기를